

## 오피니언

## 데스크 시각

박 치 경



또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든 시간만큼은 정직하고, 때로는 약속할 정도로 어김없는 것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이렇듯 불잡을 수 없는 시간은 '마침내' 2010년을 열어놓았습니다. 2010년의 벽 두에 마침내라는 어휘를 동원한 것은 올해가 예사롭지 않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 창조적인 능력이 우선

우선 2010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오는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도 교육감, 교육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지방의원 비례대표 투표까지 유권자 한 명이 여덟 번 봇집을 써어야 하니 쉽지 만은 않은 '시험' 같아 보이는군요.

투표가 시험이라고요? 물론 지역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지방선거에 나오려는 사람들은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일꾼을 뽑는 일을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를 봄까요? 공교롭게도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 '선거 시험' 잘 치러야 하는 이유

30주년입니다. 광주시민들은 지난 1980년 일어난 금칙한 상처를 딛고 꾸짖하게 광주를 보듬고, 살림살이를 키워왔습니다. 그사이 광주는 직할시로 거쳐 광역 시로 거듭났습니다.

무엇으로 끊어간 옛 전남도청 자리에서는 광주의 위상을 바꿔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채비로 분주합니다. 또 각고의 노력 끝에 2015년 광주에서 세계 대학생들의 체육축전인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광주는 한 참이나 배가 고

듭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생산도시 기반' 마련에 온 힘을 기울였고, '아시아 문화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전력투구했지만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하면 아직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광주가 이룬 시일 내에 성장 하려면 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전남은 둘러볼까요? 귀에 박힌 '낙후'에서는 많이 벗어났지만 농사짓고, 물고기 잡아 생계를 잊던 분들이 대다수였던 때에 하루아침에 때깔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일선 시·군의 살림살이를 맡을 단체장들도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과거 같으면 무슨 정당에 자주들락거렸던 이들이 쉽게 당선됐지만 이제는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비전과 실천능력이 없다면 곤란하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 투표 잘해야 행복해져

이번에는 광주와 전남의 교육감도 주민의 손으로 뽑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은 살림은 뒤지더라도 아이들만큼은 공부 잘한다는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아이들 공부 더 잘하게 하고, 인성 바르며, 창조적인 사람으로 교육하는 책임자를 선출하는 일도 무척 중요합니다.

좋은 지방의원을 선택하는 것도 역시 매우 소중합니다. 자치단체가 주민들이 낸 세금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지역의 미래 설계가 훌륭한지, 지역민들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내 속 시원하게 굽어주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은 자치의 감시자입니다.

이 정도 살펴보면 '6·2 지방선거 시험'을 잘 치러야하는 이유를 대강은 알 법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1부장〉 unipark@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송 민 석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상을 주었다.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시를 잘 짓는다고, 그림과 글씨에 뛰어나다고 상을 주었다. 그런데 훌륭한 평가를 잘 드리거나 심지어 팔씨름을 잘한 학생에게까지 주어 관심을 끈 적이 있다.

교육의 본질은 사회적 문제해결이 아니라, 한 어린이의 변화에 두어야 한다. 어린이의 가슴에 잠겨있는 창조적 씨앗

으로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학입시에서 입학 사정관들의 뜻이다.

오는 6월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16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도 학교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이다.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후보군이나 저출질하는 후보군들 저마다 적임자를 자처하며 물밀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기존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정치권 영향이나 투

## 학교교육에 선진화의 인프라를 깔자

이 자라나도록 자극하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 잘할 때 잘했다고 인정해 줄 때 긍정적인 자아의식이 싹트고, 자기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방향으로 꽂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이제까지 잠재력을 꽂고자 하는 온실험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오히려 상대를 협동보다는 경쟁 대상자로 여기는 훈경이 조성되어왔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창조력마저 애기교육으로 고갈시켜 왔다.

우열반 편성이나 주입식 주제의 소파로ts 지도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이 바꿔야 한다. 과거에는 공부만 잘하면 우수학생이었으나 이제는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봉사정신,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발전 가능성 있는 도전적인 학생을 발굴해야 한다. 비교과 영역에서 교사의 평가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학생활동 기록 중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 천문학적 대학 등록금... 정부가 대책 내놔야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학비와 그렇게 돈 들여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이 어렵기 때문에 안팎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중하위권 대학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하다. 지금의 대학생들 대부분이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부모에 대한 죄책감이 크고 그 부담을 머리에 짊어지 고 산다고 토로한다.

더구나 서울의 아주 잘나가는 대학에 다니는 것이 아니면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이런 장시간 노동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공부할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이수연·광주시 광산구 오기동

기 고

장 화 선



지난해 연말 텐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코펜하겐 총회)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만남과 채 큰 소득없이 막을 내렸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생각의 차이와 기후변화에 대한 셈법이 전혀 다른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 그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다. 총회장 주변에는 개도국들의 희망을 담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여겨졌다. 실속없고 지지부진한 회의진행(합의서, 협정문 등)을 꼬집어

## 아쉬움만 남긴 2009 코펜하겐 총회

노펜하겐(Nopenhagen)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은 물론 우리나라 시민단체 소속 예술가가 코펜하겐 인여상 부근에 만든 작품에 '말장난 그만, 온실가스 배출도 이제 그만'이라는 작품과 '한국 녹색성장 녹색기만'이라는 포퍼먼스도 있었다. 이를 표현은 192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회의에 대한 진실성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번 총회에서의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반해 경제력을 키운 선진국들이 결단을 내릴 지 여부였다. 개도국들이 수긍 가능한 선진국들의 중기(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노력 그리

고 현실성 있는 기후변화적용 자금지원과 기술이전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반영하듯 코펜하겐 총회가 시작되자 전 이 회의를 규정하는 핵심단어가 'FAB'였다. '공평한(Fair) 협상', '野心적인(Ambitious)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구속력 있는(Binding) 감축목표 설정'을 줄인 말이다.

하지만 당사국총회의 최종적인 결과는 합의문이나 의정서가 아닌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의 협상 일치문에 대한 20여 개 선

고 있는 기후변화행동네트워크가 국제 환경회의 때마다 '그날의 화석상'을 발표하는데, 이번 코펜하겐 당사국총회 기간에 거론된 국가는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 미국, 호주, EU였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기주의와 패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클리마포럼(Klimaforum)도 출범했다. 이 포럼은 선진국들과 몇몇 개도국들에게서 나타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자본주의적 관점,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반기자기 기후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펜하겐 총회에서 주요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해 빛을 지고 있다는 마음뿐이다. 같은 길은 멎고 혼난다. 우리는 지금의 애인한 태도로 언젠가 닥쳐올 미래의 재앙을 방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스스로도 기후변화와 관련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치를 수립해 꾸준히 추진해가는 자세도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푸른광주21협의회 사무처장〉

##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한 신호연동체계 유지했으면

심야시간에 광주 시내를 운행을 해보면 주간에 비해 유동 신호위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호체계가 가장 큰 이유이지 싶다. 주간에 운영되던 연동신호체계가 심야시간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로에서 주간에는 한 번의 신호를 받으면 다음 신호에서도 진행신호를 받을 수 있는데 심야시간에는 신호를 받고 출발하면 다음 신

▲조경현·광주시 서구 금호동

시 설

## '세종시 블랙홀' 우려 현실화되나

세종시가 기업과 투자의 블랙홀이 돼 다른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3.3㎡당 227만원인 세종시 매각대상용지를 최저 36만원선에 대기업과 대학 등에 공급하는 등 과격적인 특혜를 담은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5일 세종시 민관합동위 회의에서 확정된 입주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보면 토지와 재정, 규제 등을 망라한 모든 부문에서 유례없는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원형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선에서 제공된다. 이는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공급가격에 비해 40만원이나 저렴할 뿐만 아니라 평균 조성원가 227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또 신설기업은 기업도시에 준해 각종 세금이 감면되고 입주 기업에는 임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까지 이뤄진다.

민관합동위의 수정안이 그대로 확정

될 경우 세종시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게 뻔하다. 특히 세종시 보다 수도권에서 훨씬 멀어진 광주·전남의 피해는 치명적이다. 어떤 기업과 투자자가 우리 지역에 눈을 돌리겠는가. 오히려 지역 소재 기업조차도 세종시 이전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 수정으로 다른 지방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공수표(空手票)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지역 민도 알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로 인해 타지방이 타격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5일 세종시 민관합동위 회의에서 확정된 입주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보면 토지와 재정, 규제 등을 망라한 모든 부문에서 유례없는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원형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선에서 제공된다. 이는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공급가격에 비해 40만원이나 저렴할 뿐만 아니라 평균 조성원가 227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또 신설기업은 기업도시에 준해 각종 세금이 감면되고 입주 기업에는 임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까지 이뤄진다.

민관합동위의 수정안이 그대로 확정

될 경우 세종시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게 뻔하다. 특히 세종시 보다 수도권에서 훨씬 멀어진 광주·전남의 피해는 치명적이다. 어떤 기업과 투자자가 우리 지역에 눈을 돌리겠는가. 오히려 지역 소재 기업조차도 세종시 이전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 수정으로 다른 지방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공수표(空手票)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지역 민도 알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로 인해 타지방이 타격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5일 세종시 민관합동위 회의에서 확정된 입주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보면 토지와 재정, 규제 등을 망라한 모든 부문에서 유례없는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원형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선에서 제공된다. 이는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공급가격에 비해 40만원이나 저렴할 뿐만 아니라 평균 조성원가 227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또 신설기업은 기업도시에 준해 각종 세금이 감면되고 입주 기업에는 임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까지 이뤄진다.

민관합동위의 수정안이 그대로 확정

될 경우 세종시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게 뻔하다. 특히 세종시 보다 수도권에서 훨씬 멀어진 광주·전남의 피해는 치명적이다. 어떤 기업과 투자자가 우리 지역에 눈을 돌리겠는가. 오히려 지역 소재 기업조차도 세종시 이전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 수정으로 다른 지방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공수표(空手票)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지역 민도 알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로 인해 타지방이 타격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5일 세종시 민관합동위 회의에서 확정된 입주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보면 토지와 재정, 규제 등을 망라한 모든 부문에서 유례없는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원형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선에서 제공된다. 이는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공급가격에 비해 40만원이나 저렴할 뿐만 아니라 평균 조성원가 227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또 신설기업은 기업도시에 준해 각종 세금이 감면되고 입주 기업에는 임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까지 이뤄진다.

민관합동위의 수정안이 그대로 확정

될 경우 세종시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게 뻔하다. 특히 세종시 보다 수도권에서 훨씬 멀어진 광주·전남의 피해는 치명적이다. 어떤 기업과 투자자가 우리 지역에 눈을 돌리겠는가. 오히려 지역 소재 기업조차도 세종시 이전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 수정으로 다른 지방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공수표(空手票)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지역 민도 알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로 인해 타지방이 타격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일파만파의 후폭풍을